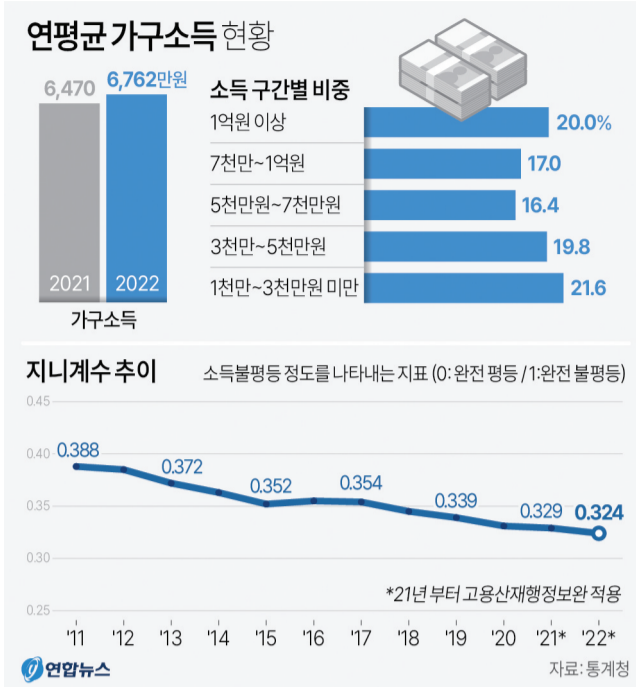


가계소득 5곳 중 1곳은 억대... 광주 평균소득 6349만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남 평균소득은 6093만원 전체 가구 소득 전년비 4.5% 증가... 양극화 지표 개선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개선되는 흐름을 이어갔지만, 부분적으로는 '은퇴연령층' 지니계수 또는 상대적 빈곤율 지표가 악화했다. 소득 1억원을 웃도는 가구 비중은 처음으로 20% 선까지 높아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은 7일 이력 내용을 담은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구소득 평균 6762만원...4.5% 증가=2022년 한해 '가구소득'은 평균 6762만원으로 조사됐다. 2021년(6470만원)과 비교해 4.5% 증가한 규모다. 중앙값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5362만원이었다. 근로소득이 4390만원으로 6.4% 증가했다. 사업 소득은 4.0% 늘어난 1206만원, 재산소득은 2.5% 증가한 436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코로나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은 656만원에서 625만원으로 4.8% 줄었다.

'비소비지출'은 평균 1280만원으로 8.1%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공적연금·사회보험료로 433만원, 세금으로 416만원, 이자비용으로 247만원, 가구 간 이전으로 141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공적연금·사회보험료 지출이 8.2%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세금을 제치고 지출항목 1위로 올라섰다.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은 5285만원에서 5482만원으로 3.7% 늘었다. 가구의 예상 은퇴연령은 68.1세, 실제 은퇴연령은 62.7세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의 가구소득 평균은 각각 6349만원, 6093만원으로 전년보다 2.01%(126만원), 6.7%(354만원) 증가했다. ◇'고소득층' 5분위 평균소득 1억5598만원...1분위는 1405만원=구간별로 가구소득은 1000~3000만원 미만인 21.6%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20.0% ▲3000~5000만원 19.8% ▲7000만~1억원 17.0% ▲5000~7000만원 16.4% 순이었다.



특히 1억원 이상 가구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 선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40대인 가구에서 소득 1억원

이상이 각각 30.5%와 27.9%로 비중이 가장 컸다. 중상위층인 1분위 가구에서 1억원 이상 비율이 29.8%에 달했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1억5598만원으로 3.8% 증가했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 소득은 1405만원으로 4.3% 늘었다. 소득 1분위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3.5%(611만원)를 차지한 반면 근로소득은 28.0%(394만원)에 그쳤다.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에서는 근로소득이 70.6%를 차지했다. ◇소득분배지표 개선 흐름... '은퇴연령층'에선 악화=소득 불평등 지표는 개선됐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지난해 0.324로 전년보다 0.005포인트 하락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12년

(0.385), 2013년(0.372), 2014년(0.363), 2015년(0.352), 2016년(0.355), 2017년(0.354), 2018년(0.345), 2019년(0.339), 2020년(0.331), 2021년(0.329) 등으로 완만히 낮아지는 흐름이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누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전년의 5.83배에서 지난해 5.76배로 하락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76배라는 의미로, 2년 만에 개선된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커질수록 소득 격차가 심화, 작을수록 완화했다고 풀이된다. 다만 부문별로는 엇갈린 양상이다. 일하는 연령대의 지니계수는 0.303으로 0.007포인트 감소했지만,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83으로 0.005포인트 증가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나빠졌다.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했고, 은퇴연령층은 39.7%로 0.4%포인트 높아졌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연말연시 꽃 선물 어때요? 광주시세계 본관 지하 1층에 마련된 '남산농업' 팝업 스토어에서 직원들이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꽃을 선보이고 있다. 남산농원은 30여년 간 영암군 미암면에서 운영 중인 화훼농가로, 국내는 물론 일본 등 해외에서도 최상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광주시세계 제공>

밀 가격 하락에 밀가루값 하락 관심

농식품부, 기업에 가격인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한영 식량정책관이 7일 구로구 CJ제일제당 영등포공장을 찾아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밀 선물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지난해 5월 t(톤)당 419달러까지 올랐다가 점차 하락해 지난달 27일 196달러까지 내려갔다. 밀 수입 가격도 지난해 9월 t당 500달러에 근접했으나 올해 10월 324달러로 하락했다. 전 정책관은 현장에서 이를 언급해 "밀 수입 가격 하락을 반영해 밀가루 가격 인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부터 제분업체 경영 안정을

위해 밀 구매 정책자금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정책관은 지난 5일에는 대한제분을 찾아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은 정부 요청에 따라 밀가루 가격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주원료로 쓰는 제빵, 제과, 라면업체의 원가 부담도 줄어든다. 제분업체 관계자는 "원맥 가격이 최근 하락세이긴 하지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은 모두 상승하고 있어서 가격 조정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폰 2년 뒤 반값 댄 반값 돌려 드려요"

삼성, 1020 겨냥 '갤럭시 S23 FE' 출시...고사양에 색상 다양

삼성전자는 8일부터 10~20대를 겨냥한 스마트폰 갤럭시 S23 FE(사진)를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팬에디션(FE)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의 주요 성능을 갖추면서도 사양을 낮춰 가격을 내린 모델로, FE 신제품의 국내 출시를 갤럭시 S20 FE 이후 3년 만에이다. 갤럭시 S23 FE는 민트, 그라파이트, 퍼플, 크림 등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삼성닷컴과 플래그십 스토어인 삼성강남에서는 두 가지(탠저린·인디고) 색상이 추가로 나온다. 256GB 단일 기종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84만 7000원이다. 지난 10월 글로벌 출시 당시 같은 기종의 세전 출고가 659달러(약 86만7000원)보다 싸다. 특히 삼성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조에 발맞춰 갤럭시 S23 FE 구매 고객이 24개월 뒤 제품을 반납하면 출고가 50%를 보상은 내용의 '갤럭시 퍼펙트(perFEct)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동통신 3사가 통신적 수준보다 높은 공시지원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에서 소비자들이 2년 약정으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뒤 반값에 출고가의 절반을 보상을 받을 경우 실제로 지출하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닷컴과 삼성스토어 10개 매장을 통해 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해주는 '갤럭시 Trial' 체험 프로그램을 선착순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제품은 S 시리즈의 플래그십 성능을 대부분 구현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갤럭시 S23 FE는 고사양 프로세서를 탑재해 안정적인 게이밍 경험과 효율적인 멀티태스킹을 제공하며, 163.1mm(6.4인치)의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로 눈의 피로를 최소화한다. 통신사들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조에 동참해 추가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양에너지, 기업혁신대상 산자부장관상

위기 극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해양에너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30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서 ㈜해양에너지는 위기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982년 설립된 ㈜해양에너지는 지속적인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안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위기·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등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연료전지·지열·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수소 융복합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왔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net-zero 2040' 프로젝트와 ESG 경영 국제인증 등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다양한 ESG 경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30회를 맞이한 기업혁신대상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모범기업을 대상으로 시



상하고 있다. 지난 8월 공모를 시작해 서류와 현장, 종합심사를 거쳐 수상기업을 선정했으며, 광주에서는 광주상사의 추천한 ㈜해양에너지가 수상했다. 최종관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현재

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혁신을 지속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경영혁신으로 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지역기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격려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농협 광주본부, 사포닌벼 수매

새청무 400t·동진벼 200t... '황후의 아침쌀' 브랜드로 전국 유통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선)는 7일 본량농협이 최근 농협양곡창고에서 2023년산 기능성벼 수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매 품종은 계약재배에 나선 신동진·새청무 2개 품종으로 새청무는 약 400t(1만포/40kg), 신동진벼는 약 200t(5000포/40kg)을 수매했다.

이들 벼는 '기능성 벼 계약재배단지'를 통해 인증된 시험기관 의뢰를 통해 다량의 '조사포닌'과 '비나눔' 성분이 함유됐음이 검증됐으며, 농협 자체 프리미엄 브랜드인 '황후의 아침 쌀'로 전국에 유통될 예정이다. '황후의아침 쌀'은 2020년부터 본량농협의 '기

능성 특화작물 육성 프로그램'에 의해 재배, 출시한 고급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상윤 본량농협 조합장은 "올봄 냉해에 이어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폭풍-태풍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본량농협을 믿고 열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리미엄 기능성 농산물의 확대와 보급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단공단 광주본부, 연말 온기 나눔

실버타운 등 300만원 후원물품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7일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와 함께 광주시 서구 노을실버타운 등 사회복지기관을 찾아 3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산단공은 앞서 지난 1일에는 광주첨단 ESG커뮤니티와 함께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김장김치 나눔 활동을 펼쳤다. 산단공은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장애인과 독거노인, 고독사 고위험군 등 150세대에 5kg씩 전달했다. 광주첨단 ESG커뮤니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내 14개 유관기관과 기업의 참여로 2020년 5월 결성됐으며, 환경정화활동과 김치나눔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런 활동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따뜻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2.07 (-3.31)
↓ 코스닥	813.20 (-6.34)
↑ 금리(국고채 3년)	3.511 (+0.048)
↑ 환율(USD)	1325.30 (+12.20)